

I 제22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I

## 한국의 기본소득

: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 실현과 의미

이지수 I 군산대 사회복지학과

(공동연구팀: 서정희, 이지수, 안효상, 조광자, 한인정)

# 글 전체 개요

## 1 사례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: 공유화로서의 기본소득

기본소득이 공유지에서 발생한 공유부에 대한 분배방식으로 활용될 때,

공유지를 재생산하고 확장하는 또 하나의 공유화임을 사례를 통해 살펴봄

## 2 연구방법

판동초 매점협동조합의 형성과 어린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사례연구

40명의 공유자에 대한 인터뷰 자료의 분석

## 3 사례연구 결과

#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을 보는 관점

## 공유지 (commons)

- 대지, 바람, 숲, 호수, 바다는 누구의 사유재산도 아닌 모두의 것. 그러나 현실은 개인의 것이거나 국가의 것으로 귀속되어 있음.

공유자 (commoners)는 계속 새로 만들어지기도, 강탈당하기도 하는 것

- 공동체의 구성원으로, 공유부를 공유, 공동출자 하고, 공유지에 대한 권리를 자각하고 주장하고, 이를 유지

공유부 (common wealth) 보존하고자 하는 주체들

- 공유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물질적, 비물질적 사물 (thing)
- 역사와 문화를 통해 다수 사람들이 형성한 것, 공유부로 전환된 문화적인 어떤 것들, 다수가 공동출자한 자원, 다수가 국가에 맞서 권리를 요구하는 자원, 원가를

#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을 보는 관점

## 공유화 (commoning)

- 공유화는 공동체가 공유지에서 행하는 사회적 행위. 공유부를 (재) 생산하고, 공유자 자신과 사회적 관계를 (재) 생산하는 공동의 행위
- 신자유주의 하의 '새로운 인클로저' 에서 공유화는 일회적인 사건일 수 없음. 공유화와 탈공유화의 역동적인

## 공유화 중심의 공유지 이해

- 공유지는 자원 등 외적 대상으로 한정되지 않음
- 공유지는 공유화를 핵심으로 공유부와 공동체를 세 기둥으로 하는 사회생태 체제 혹은 패러다임

#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을 보는 관점

## 공유부 분배방식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

- 공유지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대상, 규칙에 따라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이용하여 얻는 이익이 곧 분배인 것으로만 설명해 왔음.
- 그러나 다양한 공유지에서 시장과 국가를 매개로 해서 화폐적 부가 생산되고 있음. 예) 제주도 공동목장의 풍력발전 부지 임대 수익
- 공유지 내 개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지만 공유지를 토대로 얻은 수익이 존재함.

### 1차 공유화와 2차 공유화

- 공유지 특유의, 공유지에 걸맞는 분배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
  - 1차 공유화- 공유자들이 공유지를 인식, 이용, 유지, 관리, 재생산하는 일체의 행위
  - 2차 공유화- 공유지 특유의 분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배

#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의 개요

## 판동초등학교

- 충북 보은군 삼승면 위치
- 1965년 개교. 현재 전교생 36명의 소규모 학교

## 팔판동 사회적협동조합

- 2019년 충북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판동초 내 매점 협동조합
- 사회적협동조합

##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

- 2020년 가을 시작
- 매점협동조합에 들어온 100만원의 기부금
- 매주 월요일 전교생에게 2천원의 매점화폐를 무조건적으로 지급

# 1차 공유화의 과정

공유지의 인식, 사용, 보존, 관리로서의 공유화

판동초라는 전통적 공유지에  
모인 공유자들이 팔판동  
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 
공유지를 만들고 사용, 보존,  
관리하는 과정

여기에 관련된 요인들을  
살펴봄



# 1차 공유화의 과정

공유지의 인식, 사용, 보존, 관리로서의 공유화

## (1) 판동초라는 공유지의 과거와 현재

- 작지만 강한 학교: 기억과 관계의 힘

“김기봉어르신에 희사한 땅”, “여덟명의 판서가 나올 학교”

- 판동초와 마을의 현재: 소멸 위기의 지역과 학교

“문구점, 슈퍼 하나, 여기는 없다”



# 1차 공유화의 과정

공유지의 인식, 사용, 보존, 관리로서의 공유화

## (2) 새로운 공유지를 꿈꾸고 가꾸는 공유자들

- 판동초 아이들: 간식, 재미난 공간, 선택의 기회가 있는 공간을 꿈꾸다
- 강환욱 교사: 공교육에서 대안교육을 꿈꾸다
- 학부모: 이방인에서 공유자로, 학교와 지역에 뿌리내리기를 꿈꾸다
- 교장: 교장으로서 첫 부임지, 마을과 함께하는, 작지만 강한 학교를 꿈꾸다
- 동문과 지역주민: 지속가능한 학교와 마을을 꿈꾸다
- 충북과 보은의 협동조합 조합원들: 지자체 장에 대한

# 1차 공유화의 과정

공유지의 인식, 사용, 보존, 관리로서의 공유화

(3) 제도적 맥락: 공유자들을 연결하고 결합시키는 장으로서

- 다모임: 아이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학생 자치회
- 보은의 협동조합들: 아이들을 중심에 두는 지역교육 공동체
- 충북교육청의 학교협동조합 지원제도: 판동초 팔판동

(4) <sup>협동조합 설립의 촉발요인</sup> '우리'의 협동조합, 관계에 기초하여 만들어가는 새로운

- 학생, 학부모 매니저의 역할
- 의견 청취와 조율을 통한 매점 이용규칙 만들기

## 2차 공유화의 과정

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공유화

(1) 새로운 공유지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

- 못 오는 아이는 계속 못 온다
- 아이들 간 차이의 가시화와 '탈공유화'의 위기

(2) 모두 올 수 있는 공유지 만들기 노력: 어린이

기본소득의 도입  
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문제, "용돈이 없어요.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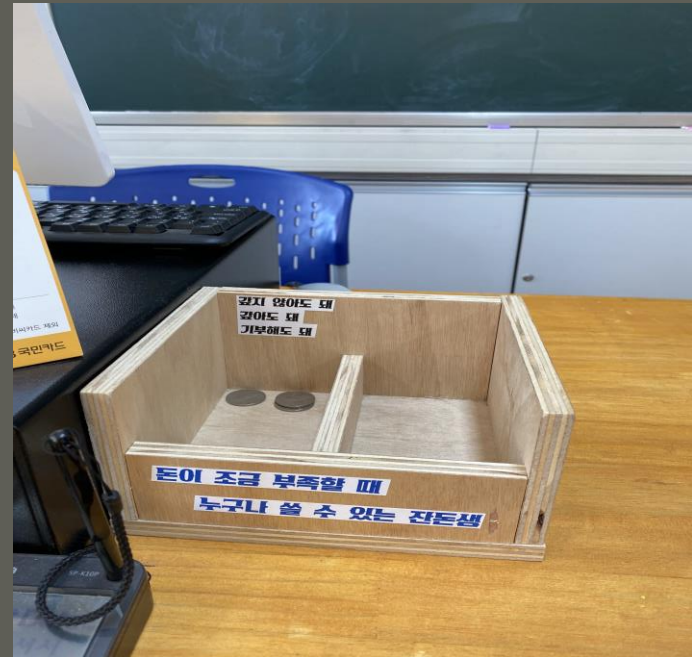
- 강환욱 교사의 리더십, "생활선생님"이 된 학부모 이사들
- 협동조합 연결망을 통해 들어온 기부금 100만원, 공유부
- 기본소득으로 나눌 결심
  - 장학금도 아닌, 저소득가정 학생 지원도 아닌
  - 공유자들의 신뢰, 민감성, 평등에 대한 공감대

## 2차 공유화의 의미

어린이 기본소득을 통한 공유지의 (재)생산과 확장

### (1) 공유지의 활성화와 그 의미의 변화

- 매점 공유지의 활성화:  
살아나는 공유지
- 공유지의 의미 변화:  
무조건적 기본소득이 가져온 평등과 연대 (부모로부터의 자립, 대등한 친구관계, 같이 쓸 수도 있는 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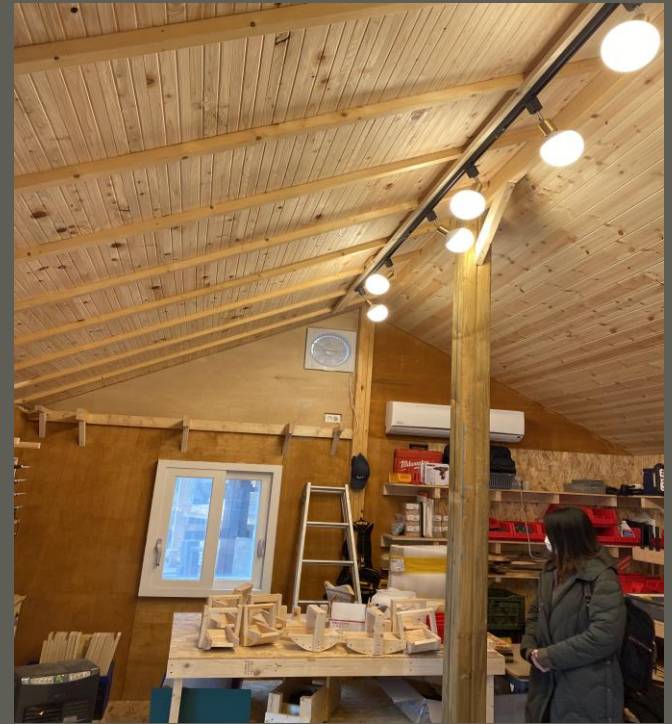


## 2차 공유화의 환류

어린이 기본소득을 통한 공유지의 (재)생산과 확장

(2) 주체로 성장하는  
공유자들,

- 아이들의 성장, 주체적  
공유지 확장을  
고민하다
- 아이들의 성장, 주체적  
공유자로 서기 (학교자부심,  
소비자 경험, 평등의 내면화)
- 학부모의 공유지 유지와 확장에  
대한 책임감
- 강환욱 교사의 공유지 지키기  
고민, 학교의 제도적 뒷받침  
필요
- 교장의 열의와 기본소득의  
제도화 모색



## 2차 공유화의 환류

어린이 기본소득을 통한 공유지의 (재)생산과 확장

### (3) 후원자의 확장

- 지역주민의 결합
- 외부 후원자의 결합

### (4) 보편적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의 확장

- 내 아이만이 아니라 내 아이가 몸담고 있는 고장이 잘 됐으면
- 농촌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
-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공감

## 결론

- 공유화 경험이 공유자 개개인의 삶에서 갖는 의미와 가치
- 공유지의 발견, 구축, 활용, 보존, 관리로서의 1차 공유화
- 공유지의 활성화와 확대에 기여하는 공유부 분배방식으로서의 기본소득
-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되, 공유자들의 주체적 의지를 놓치지 않는 공유지 만들기 기제로서 기본소득이 기능할 가능성의 확인

